

2008 새해설계 ④

포천시탁구협회 회장 이기양

초등학교 탁구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해야

유승민 선수의 맥을 이어가는 선수발굴 필요



1998년에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시탁구협회는 유승민 선수를 배출한 이후 학교에서 탁구종목을 육성하지 않아 이렇다 할 선수 발굴이 못하고 동호인들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장으로 취임하여 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양(59·사진) 회장은 "포천시 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탁구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탁구협회는 1년중 회장배 대회, 탁구협회 연합회장배, 체육회장배 대회 등 1년에 3개 대회를 치르고 있다.

경기단체육대회에서 포천시가 7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탁구종목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학교체육의 대가 끊기다 보니 성적이 하향길로 들어섰다. 포천시 탁구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송우초등학교의 경우 탁구팀 창단을 위해 노력했으나 체육관이 없어서 수포로 돌아갔다.

포천시체육회와 경기도포천교육청, 탁구협회가 하나되어 운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육성할 학교

를 정해 포천탁구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포천시가 탁구동호인들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탁구인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통해 탁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국어는 5세부터 아이들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선발해 출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반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보면 놀란다"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탁구선수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

게 힘든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경향도 탁구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협회 회장직을 맡아 대회개최 때마다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온 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탁구인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통해 탁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탁구동호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탁구협회 임원명단 및 동호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이주석 ▶ 임기혁 ▶ 김상복 ▶ 회장 이기양 ▶ 부회장 ▶ 유철현 ▶ 박홍룡 ▶ 이승근 ▶ 최석운 ▶ 사무국장 김경조 ▶ 동호회 ▶ 송우탁구클럽 ▶ 송우동우회 ▶ 포천동우회 ▶ 일동동우회 ▶ 대진대학교 교직원동우회 ▶ 대진대학교 교수동우회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개성인삼 발전방안 학술 세미나

6년근 인삼 재정립 위한 콘텐츠 개발해야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는 개성인삼농협이 주관하고 한수이북 9개 시군인삼작목반·경인행정학회가 후원하는 '개성인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26일 대진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6년근 개성인삼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검증하여 개성인삼의 위치와 위상을 재정립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는 개성인삼의 역사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던 1부 세미나에서 윤희철 대진대 교수는 "개성인삼의 역사가 비하여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미흡하고, 개최장소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포천천을 정비, 천변광장을 활용하고, 금산인삼축제조직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풍부한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영 좋은농촌만들기 대표는 "개성인삼농협의 역사는 알려진 대로 1910년부터가 아니라, 규장각 도서에 의하면 개성에 종삼회사가 설립된 19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 세미나는 개성인삼의 약효에 대한 탐구와 개성인삼을 명품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학술적 탐구가 이어졌다.

최광대 인삼학회의 감사는 "개성인삼의 약효는 뇌기능향진, 항통증, 입예방과 면역기능 증강 등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학적 임상연구를 통해 세계의 명약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덕춘 경희대 교수는 "고려인삼의 효능을 밝혀 고기능성을 입증하고, 재배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중금속 등에 노출되지 않고 병에 자유

로운 청정재배를 통해 명품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개성인삼농협은 이날 행사를 통해 경기북부의 특용작물인 개성인삼의 산업화 촉진, 학문적인 토대를 통해 세계의 명약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개성인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26일 대진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개최했다.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는 개성인삼농협이 주관하고 한수이북 9개 시군인삼작목반·경인행정학회가 후원하는 '개성인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26일 대진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개최했다.

백운계곡관광지부 부인회 100만원 기탁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정성 모아 접수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백운계곡관광지부 부인회(팀장 정옥훈 은순옥)가 백운계곡동장군 축제 식음료나 운영수익금 중 100만원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접수된 금액은 관내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해뜨는 집에 50만원을 전달했으며 자녀들의 교육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등면 이만석 강도사에 50만원을 전달하고 요긴하게 써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지난 1개월동안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한 성금 내역은 ▶김종현 윤빌딩 대표 200,000원(자동이체) ▶강수봉 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박노현 용아섬유 대표이사 100,000원(자동이체) ▶권현주 포천제일교회 담임목사 100,000원(자동이체) ▶한명숙 청풍삼계탕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윤이용 동성사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정

춘옥 출장부페 청실홍실 대표 50,000원(자동이체) ▶박병식 이동맞잡비 대표 50,000원(자동이체) ▶박명희 30,000원(통장입금) ▶정승영 가산삼거리 추어탕 대표 30,000원(자동이체)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유재철 10,000원(자동이체)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이재정 회장 외 회원일동 100,000원(월 정기이체)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최호열 대표이사기 백운계곡관광지부부인회 은순옥 팀장으로 부터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받고 있다.



백운계곡관광지부 부인회로부터 기탁받은 성금 100만원을 해뜨는집과 이만석 님께 전달했다.

추천! 한마당 아빠, 내가 조금 넣어 줄게 이야기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한 눈에도 걸림입을 짐작 할 수 없었다. 귀뚜라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인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 못보는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음식집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주인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저어... 아저씨! 순대국 두 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애야 이리 좀 와 볼래" 계산대에 앉아 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있을 자라라서 말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아저씨의 말에 낮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

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예요." 아이는 비에 젖어 녹녹해진 천 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예요."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대국 두 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빠, 내가 조금 넣어 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그리고는 국밥 속에 들어 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앞 못보는 아버지의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했어요니까 어서 밥 때 내가 김치 올려 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 볼 수가 없었다.

잠시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귀천이 없으나 스스로를 귀하고 천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남들에 일상의 행동이 이 아이의 효행처럼 세상에 좋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011-342-5834)

포천문인협회 이중희 회장 선출

36명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 정기총회가 2월22일 3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7년 사업활동 보고, 2007년도 감사보고, 2007년도 결산 승인 및 임원선거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이중희 회원과 이재욱 전 회장이 출마해 소

결발표에 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중희 23표, 이재욱 12표, 기권 1표로 이중희 회원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2007년도 감사보고에서 안유진 감사는 "제1회 포천문학상이 근거없이 추진되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천문인협회 2008년 주요 사업계획은 ▶포천문예대학 ▶포천

문예백일장 ▶포천문학 10집 출간 ▶월간 시선집 발간 ▶제2회 포천문학상 ▶문학회원 등단 확대 등이다. 이번엔 선출된 이중희 회장은 "임기 3년만 하고 물러날 계획"이라며 "소결발표에서 제시한 사항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4대 포천문인협회 임원 명단이다. ▶지부장 이중희 ▶부지부장 이원용 ▶부지부장 김영복 ▶감사 윤순옥 ▶감사 안유진 ▶이사 이인웅 ▶이사 정기모 ▶이사 안정웅 ▶이사 강돈희 ▶이사 손영배 ▶이사 김명근 ▶이사 박혜자 ▶이사 강현남 ▶사무국장 김신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 정기총회기 2월22일 3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나라당 포천·연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우 후원회

'깨끗한 정책일꾼' 김영우를 후원해 주세요!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경관리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졸업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졸업
 -포천중학교 입학(3학년 2학기 전학)
 -경희중학교·경희고등학교 졸업
 -포천초등학교 졸업(6/6회)

경력 -00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 부팀장
 -00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지원위원
 -00 한반도대응연구원 운영위원
 -00 CSO(국제정책연구원-이명박선명) 정책국장
 -00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의 정책기획위원
 -00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이명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실장실 부실장
 -00 YTN 기자

정체된 포천·연천, 이제는 발전해야 합니다.
 불 꺼진 상가에 다시 불이 켜지고 농부의 구슬땀이 필요로움이 되는
 갈사는 포천·연천, 희망의 포천·연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후원이 포천·연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 연간 10만원 한도 내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위약으로 후원이 가능하고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후,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김영우 후보 후원회장 : 이재후 변호사
 후원회 계좌 : 농협(예금주:김영빈 225041-56-059740)

대표전화 : 031-533-0700 www.young747.com
 * 이 미디어센터는 1500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광고입니다.

HD, PE, PP 원단생산/쇼핑백 · 비닐인쇄가공/각종 공업용 포장자재 전문

대일비닐총판

취급 품목
 비닐, 락카, 이형제,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 장갑, 완전코팅 장갑, 고무장갑, PVC장갑, 램, 장화, 물장화, 보류, 작업복, 보호 테이프, 각종 테이프, 각종 끈,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등

이전 장소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12
 ☎ 031) 544-3627 FAX. 031) 544-3637
 HP. 011-9070-3627 대표 : 김영재

대일비닐총판
 부인터 시거리
 의정부
 양주
 포천